

멘토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멘티, 중산신협 일일체험 특집-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조성준

<신협의 어부바, 위탁아동과의 행복한 동행>

‘가정위탁? 그게 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은 특별하다. 따뜻한 등을 내어주는 신협의 어부바는 특별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줄 것 같았다. 어부바를 느낀 우리 아이들은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을 어부바 해주겠지? 그것이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신협의 어부바, 행복한 동행일테니까”

<물 건너 산 건너, 중산신협 은행원이 되다>

어부바의 힘이였을까? 무주, 진안, 장수 등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의 멘티는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해 (정말)왕복 5시간·4번의 버스를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전주 센터로 오고 있다.

이런 멘티들을 생각 해주는 듯 멘토들은 돈다발로 우리를 환대를 해주었다. 멘토는 천원 돈다발을 인원수 별로 인출하여 지폐를 손으로 계수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자그마치 지폐 1,500장! 카드사용이 많은 요즘에는 보기 힘든 돈다발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내리는 멘토의 화려한 금융 퍼포먼스에 우리는 모두 눈이 동그래져 환호를 질렀다.

지폐만 계수하고 끝내기? 아니죠! 멘티에게 할당된 지폐의 수를 맞추는 코너 속 코너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맞춘 하영이(가명)는 멘토가 준비한 푸짐한 상품을 가져갔다. “지폐 1장 없어서도 못 찾겠지?”라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장 정도는 빼가자던 민우(가명)... “민우야 경찰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일일금융 업무체험으로 서로의 통장을 개설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통장개설 과정을 지켜볼 것만 예상했지만, 멘토는 멘티를 본인의 데스크탑에 앉히더니 하나하나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통장개설 방법을 알려주었다. 띠용! 돈다발에 이어 멘티는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도 해도

돼요?”물으며 구경하던 ATM기기를 뒤로하고 앞다퉈 체험하려 했다. 덕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퇴근 시간이 늦어진 건 비밀... “아이들이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위탁아동은 친부모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당연히 스마트 banking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인이 되면, 위탁가정에서 나와 스스로 경제관리를 해야 하는 준비된 상태에서 자립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우리 멘티에게 통장 개설은 단순히 나의 통장이 생긴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자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기관라운딩, 시청각실에서의 아동권리영화 시청, 간식시간을 가졌다. 내년에는 이곳에서 어벤져스를 보고 싶었던 멘티... “선생님이 노력해볼게!”

<금융이 따뜻할 수 있다고?>

전무님의 인사말과 함께 건물 곳곳에 위치해 있는 신협이 지역나눔, 기사, 수상 내역들을 보며 신협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그동안의 멘토링과 기관 라운딩을 통해 차갑게만 느껴지던 금융에 사람의 정이 있고 나눔과 실천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따뜻한 금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다.

“네 제가요?” 멘토링 코디네이터로 선정되었을 때 했던 말이다. 많은 업무 속 가중되는 업무라고만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듯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멘티들도 건전한 경제관념 확립과 전 인격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린 아직 4개월·5회차 현재진행형”

신협과 아이들의 코디네이터로 멘토링을 시작했지만,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멘토-멘티 간 나눔과 실천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사로서 내게 큰 행운이 내게 온 것이라고 느꼈다.

2024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신협과 함께 아이들을 어부바하고, 짧았던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 변화하고 더 나아갔다고 믿는다. 지금 비록 하나의 회기(에버랜드)만 남았지만, 멘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과 어부바 멘토선생님 언제나 응원합니다!